

# 책문화산업 · 독서문화 확산 '집중'

### 전주시, '시민이 삶을 바꾸는 전주 도서관' 비전... 독서·출판·도서관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 도서관본부(김병수 본부장)은 14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전주 도서관'을 비전에 대한 2023년도 독서·출판·도서관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책 문화 산업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다.

책문화산업 4대 추진전략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독서문화 확산, 모두를 위한 모두의 공간 도서관 서비스 확대, 책이 문화가 되는 책문화산업 활성화, 미래를 여는 도서관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시는 올해 대표적으로 열리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전주독립출판박람회, 전주독서대전' 등 책 3대

행사를 통해 독서문화확산과 책문화 사업 확대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통해 많은 국내외 그림책작가들과의 교류를 실천하고 그림책 체험 경험 기회로 이어지게 할 태세를 비쳤다.

더불어 7월에는 독립출판물과 아트북 작가들이 신작을 홍보·판매하는 '전주독립출판박람회'가 기획되었다.

특히 6회째를 맞는 '전주독서대전'은 책을 주제로한 모든 독서생태계(시민, 교육계, 언론계, 동네서점, 작가, 출판사) 교류와 함께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꾸며질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지역작가와 서점, 출판계를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출판문화산업 기반을 구축을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역량 있는 지역작가 발굴 및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공작소'에서 입주작가와 작가 지망생들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작은도서관과 지역작가·지역서점 등이 협력하여 시민공간으로 찾아오는 책 축제 계획도 품고 있다.

시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 20'을

중심으로 일상 속 독서문화를 누리도록 하며, '고전 100권 함께 읽기,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독서마라톤 대회,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2023년도에는 다양한 책 문화사업 확대와 모든 세대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혁신을 통해 시민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책문화생태계를 공고히 만들어 책문화산업이 전주의 인문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

### 좌식 음식점—입식 관광식당 전환 · 화장실 개선 등 지원

전주시는 올해 1억6110만 원을 투자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일반식당업 등록업체 중 기존 좌식 음식점을 40석 이상의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 자 하는 음식점에 △입식 시설 설치 지원 △홀·주방 개보수 △화장실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약 6곳으로,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좌석 수와 시설개선 정도에 따라 △좌석 수 80석 이상은 최대 6000만 원 △40석 이상~79석 이하는 최대 4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국세·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2023년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전주시 관광산업과(대우빌딩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덕진소방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출입문 열려 옥상으로 대피 가능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적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방화 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열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출입문)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화재 발생 시 자동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율적인 설치와 옥상으로의 피난

을 위한 출입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피난 방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거나, 공동주택마다 각각의 옥상 출입문의 사용 방법 차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공동주택 화재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혹은 야간에 공동주택을 상주 관리하는 경비실 등에서 옥상 출입문 관리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와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 출입문 관리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민·관·군·경·소방 힘 모아 촘촘한 통합방위태세 구축 다짐

###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열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군·경·소방 등과 함께 힘을 모아 확고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키로 했다.

전주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권영준 육군 35사단 전주인주대대장, 경찰, 소방서 등 통합방위협의회 소속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할 통합방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통합방위태세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안보 위협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안보 시대에 걸맞도록 각 기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든든하고 촘촘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을 비롯해 북한의 영공 침범과 무력도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펼쳐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권영준 육군 35사단 전주인주대대장, 경찰, 소방서 등 통합방위협의회 소속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튀르키예에 구호금 5만 달러 지원 결정

### 강진으로 어려움 겪는 튀르키예 피해복구 위해 지원... 우범기 시장 '형제의 나라에 희망 되길'

전주시가 최근 강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에 구호금을 보내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발생한 진도 7.8 규모의 강진으로 절망과 고통에 빠진 튀르키예에 인도적 차원의 구호금 5만 달러(한화 약 6375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구호금 지원은 '전주시 글로벌 도시 촉진 조례'에 따라 예비비를 편

성한 후 이뤄지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에 피해복구를 위한 지정 기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 국제 자매도시인 안탈리아가 위치한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형제의 나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안탈리아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10년째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일 자매도시인 안탈리아, 전주시가 가입해 활발히 활동중인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의 공동회장도시인 튀르키예 코냐시에 위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재 극심한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는 형제의 나라이자 자매도시 안탈리아가 위치한 튀르키예에 이제 우리가 희망을 전달할 차례"라며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빠른 시일 안에 피해가 복구되고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튀르키예의 대표 도시이자 문화관광도시인 안탈리아와 지난 2013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행정 교류뿐만 아니라 영화제 등 주요 국제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튀르키예 대표단이 전주를 찾아 전주세계술로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시민 안전 위한 노후도로·인도 정비

전주시 완산구는 2023년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노후도로·인도 정비 운영 방침을 내놨다.

이에따라 노후화된 도로 및 인도의 상황에 따라 색장동 등 21개 노선 6.8km 구간의 도로 재포장공사와 어은로 외 15개 노선 3.8km의 인도구간에 보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3년 완산구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62억 원으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와 도로 시설물 보수를 위해 23억 원이 소요 예정이며, 남은 39억 원은 노후된 도로와 인도 재포장 공사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추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곡교 등 4개 교량에 내진성능 보강

공사 계획으로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 기틀을 마련할 전망이다.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곡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6월내 준공예정이며, 그 외 승암교 등 3개 교량은 올해 안 준공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완산구는 해빙기 대비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관내 2255개 노선 도로 및 86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긴급복구될 전망이다.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언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